

---

# 콜롬비아 정부와 무장혁명군 협상: 합의에 다가섰다는 것은 평화에 가까워졌다는 의미일까?

카탈리나 니뇨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지역안전협력프로그램 중남미 책임자

---

원제와 출처: Catalina Niño, “Cerca de un acuerdo... ¿cerca de la paz? El laberinto de las negociaciones en Colombia”, *Nueva Sociedad*, No. 257, mayo-junio de 2015, pp. 4-14.

핵심어: 무장 갈등, 평화협상, 무장혁명군,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중남미, 라틴아메리카

콜롬비아 정부와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인민군(이하 FARC-EP) 사이에 그간 진행되어온 평화협상이 정치참여, 농업발전 및 마약정책 분야에서는 부분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현재는 피해자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리고 그러한 틀 내에서 갈등 감소 방안을 모색하던 와중에 지뢰 제거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비롯하여 몇 가지 진전을 이루기도 했다. 그래도 아직 해결해야만 하는 일이 많이 남아 있다. 콜롬비아의 일부 정치인과 사회 일각에서는 이 협상에 반대하고 있고, 또 합의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합의사항을 실천에 옮기는 문제와 갈등 종식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의 해결은 그토록 학수고대하던 최종 합의 타결보다 더 복잡할 수 있다.

2012년 8월 콜롬비아 정부는 50년 넘게 이어진 무장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자 2011년 초부터 FARC-EP<sup>1)</sup>와 협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외에 공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협상을 대외에 공개함과 동시에 ‘갈등 종식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일반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첫 단계도 마무리했다. 이 일반합의문에는 다섯 가지의 중요한 의제(농업 발전, 정치 참여, 갈등 종식, 마약밀매, 피해자의 권리)와 한 가지 보장 사항(이행, 점검 및 부서)이 포함되어 있다.<sup>2)</sup>

두 번째 단계는 2012년 10월 오슬로에서 시작하여 쿠바와 노르웨이가 평화협상 과정의 보증인으로 그리고 칠레와 베네수엘라가 협상 진행촉진자로 참가한 가운데 쿠바의 아바나에서 계속 협상하고 있는데,<sup>3)</sup> 이 단계에서는 당사자 간 직접 대화를 통해 앞서 언급한 의제에 대한 최종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다. 콜롬비아 당국자가 강조한 바에 따르면, 합의문 서명 이후에는 평화로 가는 과정의 셋째 단계, 이른바 ‘지속 가능한 평화를 향한 전환’이 시작될 것이라고 한다. 콜롬비아 정부 측의 평화협상 대표 세르히오 하라미요(Sergio Jaramillo)의 말을 빌리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평화 과정의 진정한 시작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sup>4)</sup>

1) 무장혁명군(FARC: Fuerzas Armadas Revolucionarias de Colombia)은 콜롬비아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게릴라 단체이다. 민족해방군(ELN: Ejército de Liberación Nacional)도 중요한 단체로서 정부는 이 단체와도 평화 협상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민족해방군과의 협상은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민족해방군이 콜롬비아의 발전 모델 혹은 국가 구조와 같은 사안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협상을 하자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2) El Acuerdo General(<http://wsp.presidencia.gov.co/Normativa/Resoluciones/Documents/resolucion%20339%20del%2019%20de%20septiembre%20de%202012.pdf>).

3) “Secretos de la negociación”, *Semana*, 1/9/2012.

4) Conferencia del Alto Comisionado para la Paz en el foro “Dilemas jurídicos del proceso de paz”, Universidad Externado de Colombia / Ámbito Jurídico / CIT-pax Colombia, 9 de mayo de 2013.

사실 콜롬비아 내부의 지난한 갈등을 연구하는 분석가들의 공통적 견해는 합의문 서명 자체가 평화 달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비록 합의문이 중요한 정치적·상징적 이정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갈등 종식 이후에 해결해야 할 복잡한 문제가 많이 남아 있다. 따라서 진정한 평화를 위한 조건의 구축은 길고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다. 이로 인해 게릴라들과의 최종 합의문 서명을 기다리는 동안에 정부와 전문가들은 벌써 갈등종식 이후의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

## I. 정치적 무대와 평화협상 과정

당연하지만 평화협상은 처음부터 콜롬비아 정치 무대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었다. 특히 2014년 5월에 시행된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그랬다(2015년 10월로 예정된 지자체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이다).<sup>5)</sup> 2014년 아바나에서 진행된 협상은, 후안 마누엘 산토스(Juan Manuel Santos) 대통령의 평화 방안을 지지하는 진영과 이를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진영으로 극명하게 나뉘어 있던 선거전의 핵심 쟁점이었다.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모든 것이 합의되기 전에는 하나도 합의된 것이 없다는 원칙이 적용되었는데, 이 원칙은 양극단으로 갈라진 두 진영이 선거기간에 침예하게 대립하는 데 일조했고, 또한 협상 과정을 전투마처럼 활용하는 데도 기여했다. 산토스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예견하여 아무리 늦어도 선거자금 모금 기한인 2013년 11월까지의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를 원했지만 불가능했다.

처음에는 협상 과정이 예상보다 훨씬 더디게 진행되었다. 협상이 이미 종료되

5) 이 글은 2015년 5월에 집필한 것이다 - 옮긴이.

어 있을 것으로 예상한 시점에는 두 가지 의제(농업 발전과 정치 참여)에서만 겨우 진전이 있을 뿐이었다. 그러한 부분적 합의 이후 양측은 불법 마약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고, 대통령선거 1라운드<sup>6)</sup>가 시작하기 2주 전인 2014년 5월 합의에 도달했다. 그 이후 희생자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고는 있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산토스 대통령은 재선되었는데, 대통령선거는 어떤 의미에서 평화협상에 대한 국민투표였으므로 대선 승리는 협상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다. 물론 선거 결과는 콜롬비아 국민의 상당수가 아바나에서 진행 중인 협상 방식에 적어도 의구심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보여주었다. 왜냐하면 1라운드에서는 전임 알바로 우리베(Alvaro Uribe) 대통령의 노선을 따르는 오스카르 이반 술루아가(Oscar Iván Zuluaga)가 29.3%를 얻어 25.7% 획득에 그친 산토스를 앞섰고, 2라운드에 가서야 산토스가 약 51%를 얻어 45%를 얻은 술루아가를 이겼기 때문이다.<sup>7)</sup> 좌파는 너나 할 것 없이 호전적인 정파가 정권을 잡는 것을 원치 않았고, 따라서 산토스는 이들 좌파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한편, 총선 결과 의회는 평화협상에 극렬히 반대하는 민주중앙당(Partido Centro Democrático) 당수이자 전직 대통령인 알바로 우리베 현 상원의원 중심의 우파가 장악했다. 선거가 시작될 때부터 우리베 진영은 지속적으로 평화협상을 비난하면서 산토스 진영이 게릴라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평화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나라를 FARC-EP 진영에 넘겨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6) 2014년 5월 25일 실시된 콜롬비아 대통령선거에서 어떤 후보자도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하여 6월 15일 결선투표를 실시했다. 결선투표에서 현직 대통령이던 후안 마누엘 산토스(Juan Manuel Santos)가 승리함으로써 재임(2014년~2018년)하게 되었다 - 옮김이.

7) Francisco Gutiérrez Sanín, “De contienda electoral a plebiscito por la paz”, *un Periódico*, Universidad Nacional de Colombia, 15/7/2014.

주장했다.<sup>8)</sup>

그러한 비난에 대한 답으로, 2014년 9월 산토스와 FARC-EP는 그때까지 도달한 합의문 초안을 공개했다. 정부와 FARC-EP는 공동성명을 통해 “합의 내용에 대해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무지(無知)에서 비롯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여론을 호도하려는 저의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합의문 초안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sup>9)</sup>

아무튼 비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현재 아바나에서 협상하고 있는 사안이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의구심이 팽배하고 있다. 희생자들에 대한 논의는 정의 실현과 관련이 있고, 또 합의 사항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불처벌하는(이 점에서 정부와 FARC-EP는 커다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부당한 평화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다수 분석가는 최종 합의가 2016년 혹은 2017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본다.

## II. 협상의 진전<sup>10)</sup>

합의에 도달한 첫째 사항, 즉 농업 발전에 대한 항목에는 농촌 재산의 등기를 장려하고, 영세 농민과 농민조합에는 토지 접근성을 보장하고 기술적·재정적 지

8) 콜롬비아 사람이면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우리베 전임 대통령은 정부를 비판할 때 SNS를 즐겨 활용한다. 2015년 1월에는 트위터를 통해서 평화협상에 대한 7가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현 정부가 FARC-EP를 무죄로 만들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Los nuevos ataques de Uribe a Santos por el proceso de paz?, *El Tiempo*, 5/1/2015).

9) Comunicado conjunto, La Habana, 24 de septiembre de 2014([www.mesa de conversaciones.com.co/comunicados/comunicado-conjunto-la-habana-24-de-septiembre-de-2014](http://www.mesa de conversaciones.com.co/comunicados/comunicado-conjunto-la-habana-24-de-septiembre-de-2014)).

10) 합의문은 다음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www.mesadeconversaciones.com.co/documentos-y-comunicados](http://www.mesadeconversaciones.com.co/documentos-y-comunicados)

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평화를 위한 토지기금’을 창설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기금을 통해서 콜롬비아 정부는 대토지 소유주의 미개발 토지 구입, 불모지 혹은 버려진 공유지 제공, 불법으로 취득한 토지 환수 및 농부 소유의 모든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기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농촌에 적합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회 발전(보건, 교육, 주거)을 촉진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술지원, 보조금 지급, 신용 대출, 직업교육을 하여 농어업 생산 증대 및 연대와 협동의 경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정치 참여와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 정부에 반대할 수 있는 권리 보장에 합의했다. 여기에는 오래전부터 콜롬비아에서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던 대정부 반대 권리의 명문화를 비롯하여 대중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여러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또 정치 참여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적인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고, 정당제도와 선거제도도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갈등으로 인해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의 대표자가 의회에 좀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조치하고, 갈등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안전시스템을 마련하여 80년대 말과 90년대 초 애국연합당의 지도자와 당원의 몰살 사태<sup>11)</sup>와 같은 유사한 일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한편, FARC-EP는 무장투쟁을 중단하기로 약속했지만 아직 무기를 반납하지 않고 있다. 어쨌든 지금까지 합의 사항에 따르면, 인권유린과 전쟁 범죄에 책임이 있는 FARC-EP 단원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마약밀매 문제와 관련하여, 합의문에서는 코카 재배자와 마약 밀매단원을 구분하고 있으며, 이 두 그룹에 대해서는 별도의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있다. 코카

11) 애국연합(Unión Patriótica)은 벨리사리오 베탄쿠르(Belisario Betancur) 정부가 FARC-EP와 평화협상을 진행하던 시기인 1985년 출범했다. 이 정당은 국가요원, 민병대, 마약밀매단으로부터 조직적인 탄압을 받다가 결국 사멸했으며, 대통령후보 두 사람을 비롯해 약 5,000명의 당원이 살해되었다(“Renace la Unión Patriótica”, *El Tiempo*, 11/7/2013).

재배자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코카 재배의 자발적인 중단과 대체작물 개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런 계획을 실천하는 데 지역공동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지역공동체가 다시는 코카를 재배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코카나무를 강제로 제거하거나 제초제 공중 살포까지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제초제 공중 살포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그 효과는 미약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덧붙여, 마약 소비 부분에서는 예방 프로그램과 마약 소비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 두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끝으로, 합의문에 서명하게 되면 조직범죄단체의 자금 조달과 세탁을 근절하는 조치 등의 반부패 정책 및 형사 정책을 통해 조직범죄단체에 대한 추적을 지속할 것임을 밝힘으로써 반마약 정책의 기초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 점과 관련하여 FARC-EP는 마약밀매와 관련된 모든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로써 정부는 범죄단체 색출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FARC-EP는 또한 군인뿐 아니라 농민에게도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지뢰매설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마약 재배 지역의 지뢰 제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

### III. 현재 어떤 협상이 진행되고 있나?<sup>12)</sup>

2014년 5월 마약에 관한 부분적인 합의가 이뤄진 이후,<sup>13)</sup> 희생자에 관한 논의

12) 아래 기술은 2015년 4월 초의 상황이다.

13) 양측 대표단은 '모든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하나도 합의된 것이 없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

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이 논의에서는 ‘전환기 정의실현’(transitional justice),<sup>14)</sup> 형(刑)의 감경 또는 면제, 인권 유린과 전쟁 범죄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소재 규명처럼 매우 민감한 여러 사항을 다루고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없다. 그런데도 양측은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먼저 유엔개발계획(PNUD), 천주교 주교회의, 콜롬비아 국립대학교에 무장 갈등 피해자 60명을 선발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들을 다섯 개 그룹으로 나누어 쿠바 아바나로 보내 평화 구축에 대한 기대 사항, 진실규명,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를 논의하기로 했다. 예상대로, 이러한 피해자 선발은 많은 논란을 야기했는데, 그 이유는 선발된 피해자가 700만 명이 넘는 직접 피해자와 수백만 명에 이르는 간접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선발된 60명 가운데는 정부군, FARC-EP, 민족해방군(ELN), 민병대(Paramilitares), 범죄단체로부터 피해를 본 군인, 기업가, 노조원, 학자, 언론인, 종교인, 일반인이 포함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보면 모든 유형의 폭력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본 사람을 포함하려는 목적은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sup>15)</sup> 이들은 2014년 12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쿠바에 갔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평화협상의 필요성으로서 피해자를 부각하고, 또 가해자 앞에서 의견을 피력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FARC-EP에게 피해를 본 사람은 의견을 충분히 피력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사실을 인정받지도 못했다는 점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없었다고

14) 전환기 정의실현(transitional justice)이란 과거 대규모 인권침해를 배상하기 위한 정치적·사법적 조치를 뜻한다. 여기에는 형사소추, 진실 규명, 배상조치, 제도개혁 등이 포함된다 - 옮김이.

15) Verdad Abierta, “Víctimas en La Habana: los que fueron y los que faltaron”, *Verdad Abierta*, 18/12/2014.



비판하면서 쿠바 여행에서 제안한 내용을 최종 합의문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그렇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분명한 것은 FARC-EP가 가해자였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이다. FARC-EP는 보하야 참사처럼<sup>16)</sup> 명확한 사건에 대한 책임은 인정할 용의가 있지만 아직 사과하고 있지 않다. FARC-EP 측 협상대표 파스토르 알라페는 “우리는 결코 가해자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가해자도 아니었다. 다만 명확한 사건에 대한 책임은 인정한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민중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sup>17)</sup> 그러나 콜롬비아 국민은 FARC-EP를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태도는 분명 문제가 있다. “FARC-EP가 가해자로서 책임을 확실하게 인정하지 않는 한, 어떤 말을 하더라도 협상 과정에서 이미 만연한 의구심, 회의, 불신만 가중할 뿐이다.”라는 분석가 알바로 시에라의 말은 이런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sup>18)</sup>

피해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합의에 도달한 또 다른 사항은 고위급 현역 군인과 FARC-EP 단원이 참여하는 갈등 종식 기술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휴전과 갈등 종식을 논의토록 한 것이다. 공식 발표문에 따르면, 이 분과위원회의 목적은 여러 가지 사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고, 또 “최종합의문이 타결될 경우 실행할 무장해제, 소집해제, 휴전에 대한 여러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협상이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sup>19)</sup>

16) 2002년 5월 2일 콜롬비아 태평양 연안의 보하야(Bojayá) 도심에서 벌어진 민병대와 FARC-EP 게릴라 간의 교전에서 FARC-EP가 발사한 비재래식 포탄이 주민이 대피해 있던 교회에 떨어져 남녀노소 79명이 사망했다.

17) “Nunca nos sentimos victimarios: FARC”, *El Espectador*, 24/2/2015.

18) Alvaro Sierra, “Las farc y las víctimas: sí, pero no”, *El Espectador*, 6/11/2014.

19) Presidencia de la República, “Comunicado de la Delegación del Gobierno de Colombia”, 22 de agosto de 2014([http://wsp.presidencia.gov.co/cepri/noticias/2014/agosto/Paginas/20140822\\_01.aspx](http://wsp.presidencia.gov.co/cepri/noticias/2014/agosto/Paginas/20140822_01.aspx)).

당연히 이 분과위원회 구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이에 대해 정부 측 협상대표 움베르토 델 라 카예는 협상과정에 현역 군인을 참여시키기로 결정한 것은 군부에 대한 존경의 표시이기도 하고, 또 갈등 종식을 위한 정부 결정에서 군부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비록 이 분과위원회가 직접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지는 않지만 협상 과정에 군인을 참여시키는 것은 군부를 달래는 하나의 방법이다. 왜냐하면 협상 과정에서 군부의 미래가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 50년간 게릴라라는 ‘내부의 적’을 섬멸하는 임무를 수행한 사람들로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분과위원회는 작년 말에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11월 다소 이상한 상황(물론 이 상황은 곧 해결되었다)에서 FARC가 루벤 알사테 장군을 납치하는 해프닝이 벌어짐으로써 협상이 중단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출범이 올 2월로 늦춰졌고, 2월에 정부와 게릴라 측은 42번째 공동발표문을 통해 기술 분과위원회의 운영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분명 의미 있는 진전이다. 왜냐하면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군부의 장성과 FARC-EP 단원이 한 테이블에 앉는다는 것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선발된 장성단(將星團) - ‘전환기 전략사령부’(Comando Estratégico de Transición)라고 부른다 - 은 반란 진압 경험이 많은 사령관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이러한 전력을 지닌 군인이야말로 갈등을 줄이고 최종적으로 양측의 완전한 휴전에 이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는 확신이 깔려 있다.

또한 피해자와 관련된 논의에서 양측 협상대표는 역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이 위원회는 갈등의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일반합의문 가운데 미해결 사안을 논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협상단에게 제공할 것이다. 구체적

으로 말해서, 위원회는 12인의 전문가<sup>20)</sup>와 협상대표단이 선정한 두 명의 위원회 보고자<sup>21)</sup>로 구성하는데, 이들의 임무는 갈등의 기원과 여러 가지 원인, 갈등 지속을 부추긴 주요 요인과 조건, 갈등이 국민에게 끼친 부정적 결과와 충격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sup>22)</sup>

지난 2월 이 위원회의 위원들은 각자 별도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들 보고서에는 갈등이 언제 그리고 왜 시작되었는지, 마약거래, 미국 및 콜롬비아 엘리트 집단이 담당할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미래를 향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콜롬비아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비록 전문가 중 그 누구도 진정한 우파적 입장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담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 일치를 보이는 사항은 드물다. 그러나 몇 가지 점은 일치한다. 그중 하나는 농촌지역의 재산과 토지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증폭했고, 갈등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은 농촌 사람들이라는 사실이다. 농촌 사람들은 모든 유형의 무장 단체로부터 피해를 보았다. 정부 측으로부터는 암살, 고문, 재판 없는 처형, 강제실종 및 행방불명의 피해를 보았고, 게릴라 측으로부터는 대인지뢰, 강제이주, 납치, 강탈, 불법 징집, 민간 및 공공재산에 대한 공격, 환경파괴의 피해를 보았으며, 민병대로부터는 암살, 협박, 학살, 강제이주, 토지 약탈, 고문, 성범죄 피해를 보았다. 전문가들이 의견 일치를 보이는 또 다른 사항은, 콜롬비아가 예전에 국가를 개혁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몇몇 전

20) 12인 전문가 명단은 아래와 같다. Sergio De Zubiría, Gustavo Duncan, Jairo Estrada Álvarez, Darío Fajardo, Javier Giraldo S.J., Jorge Giraldo, Francisco Gutiérrez, Alfredo Molano, Daniel Pécaut, Vicente Torrijos, Renán Vega y María Emma Wills.

21) 위원회 보고자 2인의 성명은 아래와 같다. Eduardo Pizarro Leongómez, Víctor Manuel Moncayo Cruz.

22) Comunicado conjunto, La Habana, 12 de febrero de 2015([www.mesadeconversaciones.com.co/comunicados/comunicado-conjunto-la-habana-12-de-febrero-de-2015](http://www.mesadeconversaciones.com.co/comunicados/comunicado-conjunto-la-habana-12-de-febrero-de-2015)).

문가는 지속 가능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혁을 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이런 의미에서 갈등 종식 이후가 진정한 평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적기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게릴라들의 사회 재편입에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거나 영토를 확고하게 장악하지 못하고 행정·사법기구도 개선하지 못하거나 개혁에 엘리트 집단을 참여시키지 못한다면, 폭력이 재발할 위험이 있다. 사실 지금까지 엘리트 집단은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갈등 요인을 이용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여기서 14개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을 일일이 기술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이들 보고서에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 중 하나는 “그간의 갈등은 모든 콜롬비아 사람들에게 패배를 의미했다는 점이다. 게릴라는 무장투쟁을 통해 권력을 획득할 수는 없었으며, 국가는 콜롬비아 모든 영토를 장악하는 데 실패했다. 게다가 갈등은 가장 가난한 사회계층을 더 가난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에 큰 장애물이 되었다는 점이다.”<sup>23)</sup>

끝으로, FARC-EP와 정부 간의 이번 협상에서는 성(género)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러한 틀 내에서 양측은 여성 단체 및 성 소수자 단체(LGTBI: Lesbianas, Gays, Bisexuales y personas Transgénero)와 수차례 회동했으며, 이들이 제시한 의견을 협상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23) “10 conclusiones del informe de la Comisión Histórica del conflicto”, *Reconciliación Colombia*, 10/2/2015([www.reconciliacioncolombia.com/historias/detalle/679/10-conclusiones-del-informe-de-la-comision-historicadel-conflicto](http://www.reconciliacioncolombia.com/historias/detalle/679/10-conclusiones-del-informe-de-la-comision-historicadel-conflicto)). 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또 다른 분석은 다음 글 참고 “Doce miradas sobre el conflicto”, *Verdad Abierta*, 12/2/2015([www.verdadabierta.com/docemiradas-sobre-el-conflicto](http://www.verdadabierta.com/docemiradas-sobre-el-conflicto)); Juan Esteban Lewin, “Coincidencias y divergencias de los 14 relatos sobre la guerra”, *La Silla Vacía*, 12/2/2015(<http://lasillavacia.com/historia/coincidencias-y-divergencias-de-los-14-relatossobre-la-guerra-49558>).

#### IV. 구체적인 첫 행보

협상을 진행해온 지난 2년 반 동안 양측은 모든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는 하나도 합의된 것이 없다는 원칙을 줄기차게 견지했다. 그러나 2015년 3월 부분적으로나마 그러한 원칙을 깨는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협상과정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결과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좋은 소식이다. 3월 7일 공동 발표문에서 양측은 “신뢰 구축의 일환으로 지뢰, 사제 폭발물, 불발 포탄 및 내전이 남긴 폭발물 잔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 지뢰제거에 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sup>24)</sup>

이 합의문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갈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본 농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이다. 지뢰제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평화협상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지뢰제거가 협상에 반대하는 사람조차도 동의하는 인도주의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상징성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분적인 합의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사안과 이미 법제화된 토지 회복, 농업 발전, 불법 마약 재배 근절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 결과는 머지않아 알 수 있을 것이다.

지뢰제거 합의가 평화의 표현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런 일은 협상에서 매우 복잡한 문제, 즉 합의 내용에 대한 국민의 지지에 관하여 정치인과 분석가 간의 토론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24) Comunicado conjunto, La Habana, 7 de marzo de 2015([www.mesadeconversaciones.com.co/comunicados/comunicado-conjunto-52-la-habana-7-de-marzode-2015](http://www.mesadeconversaciones.com.co/comunicados/comunicado-conjunto-52-la-habana-7-de-marzode-2015)).

## V. 향후 전망

현재 콜롬비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평화협상은 콜롬비아 역사상 그 어떠한 평화협상보다도 더 많은 진전을 이루었고, 최종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협상을 계속 하라는 양측에 대한 압력도 매우 거세다. 그런데도 협상이 더디게 진행되고, 진척상황에 대한 정부의 홍보도 매우 미흡하여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협상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협상 내용에 관해 의구심을 거두고 않고 있다. 특히 게릴라에게 적용할 사법 절차, 무장해제 후 사회 재편입 그리고 콜롬비아 군대의 미래에 대한 해답은 아직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양측의 입장 또한 여전히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2016년 혹은 2017년 이전에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현재 쿠바에서 협상을 벌이고 있는 양측이 최종 합의에 이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듯하다. 최종 합의에 도달한 이후에는 합의 내용에 대해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장담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국민 사이에는 FARC-EP에 대한 불신이 만연해 있고, 야당 측에서는 이러한 불신을 이용하고 있으며, 대다수 사회계층은 협상 진행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지지를 받은 다음에는 합의 내용을 이행하고, 지속가능하며 실질적인 평화 구축을 위해 필요한 개혁에 착수해야 하는 등, 좀 더 복잡한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게릴라와는 상관없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국가 전체가 나서야만 한다. 끝으로 콜롬비아의 폭력사태는 단지 무장 갈등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폭력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FARC-EP를 넘어서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심상완 옮김